

# 영어 학습에 있어서 문법의 위치

고 경 환  
(제주대학교)

**Koh, Kyung-whan. 2004. Position of Grammar in Learning English.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1(1), 1-15.**

In the past we were often blamed for being unable to make ourselves understood in English even though we were taught English for six years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s. It was also argued that the chief reason for this was that teaching English had been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grammar-translation method. On the basis of this diagnosis, at present schools of all levels put much more emphasis on improving two skills of language use: listening and speaking.

Is it true that the grammar-translation method of teaching English is what caused you not to make yourselves understood in English? Is grammar really a stumbling block?

The grammar was formerly, and is now, often narrowly defined as consisting only of rules making sentences. But broadly defined, the grammar of a language consists of the sounds and sound patterns, the necessary inflectional and derivational forms properly used in the sentences, the basic units of meaning such as morphemes and words, and the rules to combine these to linearly and hierarchically form sentences to convey what you have in your mind. These elements of grammar are just what you must master when learning a foreign language. And therefore, it is the writer's firm belief that proper knowledge of grammar is of vital importance in learning a foreign language. Without having the necessary grammatical knowledge of a language, you can never have the four language skills: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To make a long story short, mastering the grammar of a language to be acquired means learning a foreign language. Conversely, it is quite impossible to master a foreign language without knowing its grammar, I firmly believe. (Cheju National University)

## 1. 머리말

구한말인 1883년에 선교사들에 의해 이 땅에 영어 교육이 시작된지 120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 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증병에 걸려 있다는 비난을 줄곧 받아 왔으며, 그 병인(病因)을 “문법-번역식” 영어 교육 방식 때문이라고 하여 마치 문법이 영어 교육을 망치게 한 주범인 것처럼 매도되어 왔다.<sup>1)</sup> 이처럼 문법-번역식 교육 방식 때문에 말 한 마디 못하게 되었다는 진단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문법-번역식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회화 중심으로 영어 교육의 방향이 대전환되어야 한다는 처방에 따라 얼마전부터 시작된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서 중·고등학교의 영어 교육에 이르기까지 영어 교육이 ‘회화 중심’ 교육이라는 약을 부지런히 먹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 듣기와 말하기, 즉 회화 능력은 어느 정도 신장된다고 보겠지만, 결과적으로 또 다른 질병, 즉 읽기와 쓰기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러면 과연 과거 중·고등학교에서 6년동안 영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 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주범이 문법을 토대로 한 번역 중심의 영어 교육이었던 말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주범’이 결코 문법-번역식 교육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문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문법 교육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영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든 주범이라고 감히 진단하고 싶다. 고작해야 17, 8세기에 ‘언어 변화는 곧 언어의 타락이다.’(Language change is language corruption.)라는 생각에서 그 당시 라틴어의 문법을 그대로 영어에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규범문법(prescriptive grammar)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오늘날 영어 교육에 적용되어 사용되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 언어의 네 가지 기술의 습득은 문법 학습의 구체적인 대상을 올바르게 익힘으로써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그 대상인 음성(조직), 형태, 의미, 그리고 문장 구조와 관련된 대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영어 교육에 필요한 방법론이나 갖가지 심리적인 요인 등 software에 해당되는 부분은 논외로 한다.)

1) 뉴욕 주립대학교 영어교육과 하광호 교수도 그의 저서 「영어의 바다에 해엄쳐라」(1996: 235-236)에서 “...나는 순간 한국에서 문법이 범피자 취급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문법이 알면 통과한 것이다. 친척 일주도 되면 한국인의 문법적인 배경과 관련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습득

## 2. 의사소통 행위

언어란 ‘의사소통의 수단’(a means of communication)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략 4,000여개에 달하는 언어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화자/필자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 의사소통은 화자/필자의 어떤 생각을 일정한 소리나 글자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올바르게 청자/독자들에게 전달되려면 화자/필자와 청자/독자의 ‘내재문법’(internalized grammar)이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일치될 때, 즉 ‘공유된’(shared) 언어 지식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의사소통 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어떤 목표언어(target language)와 관련해서 A, B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문법이 다르게 되면 올바른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면 말이나 글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의사소통 행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한 적절한 언어능력을 지니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목표언어의 문법을 제대로 습득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다.

## 3. 문법이란 무엇인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언어라는 것은 ‘규칙의 지배를 받는’(rule-governed) 것이고, 그 규칙은 유한하다. 이 유한한 규칙을 사용하여 무한한 수의 문장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곱셈에서 구구법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예컨대 2×1에서 시작하여 9×9까지의 구구법을 알고, 곱셈하는 방식을 알게 되면 어떤 곱셈 문제라도 풀 수 있지 않은가? 구구법을 모르면서 어떻게 곱셈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언어 교육에 있어서 절대 중요한 것은 문법을 올바르게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 언어의 네 가지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3.1. 협의의 문법

는 용어는 원래 희랍어의 *grammatikē technē*와 라틴어의 *ars grammatica*에서 온 것으로, 'art of grammar'라는 뜻이다. 여기서 *grammatikē*와 *grammatica* 모두 *gramma*에서 온 것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뜻은 'that which is written or a written letter'(쓰여진 것, 또는 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동사 *graphein*(= to write)에서 유래된 것이다.<sup>3)</sup>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grammar*라는 용어는 문자라는 뜻에서 출발하여 나중에는 문자로 쓰여진 것을 읽고 해독하는데 필요한 '기술'(art)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옛날에는 문학 작품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중세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르면서 문법이란 학문 영역의 범위가 좁아져 지금에 와서는 일정한 언어를 다루는 학문으로 그 연구 분야를 국한시키게 되었다.

오늘날 영어를 학습하는 사람은 물론, 영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조차도 '문법'이라 할 때 그 대상을 전통적으로 좁은 의미의 문법, 즉 '문장문법'(sentence grammar)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사용하여 왔다.<sup>4)</sup> 그리고 바로 이러한 문장 문법조차도 지극히 피상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제공되어 왔다. 바로 이러한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극히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리란 실로 어려운 일이다.

### 3.2. 언어지식 · 언어능력 · 문법

우리가 언어를 안다고 하는 것은 곧 음성과 음성 조직, 음성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해서 이루어진 형태소와 단어의 뜻, 그리고 단어들이 모여 이루어진 어구와 어구들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 문장 구조를 안다는 것을 뜻한다.

2) In classical Greece and Rome, grammar and rhetoric were subjects of study by all educated men. ... Through the Middle Ages the scholarship of Western Europe was confined almost entirely to Latin. Grammar, rhetoric, and logic, inherited from the ancients, formed the core of general education. — Gleason, H.A., Jr.(1965), *Linguistics and English Grammar*, pp. 28-29.

3) *grammar*: ME. *gramer*, OFr. *gramaire*, L. *grammatica* (*ars*, art); Gr. *grammatikē* (*technē* art), grammar, learning <*gramma*, something written, letter-*graphein*, to write: in L. & Gr. the term applied to the whole apparatus of literary study, critical and historical as well as linguistics; in the medieval period it came to mean "the study of Latin," hence "all learning as recorded in Latin," and "the occult sciences as associated with this learning; these prestige senses, associated with the then unknown nature of language, are still implicit in the popular usage of the word. —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알 때 우리는 그 언어를 안다고 할 것이다.<sup>5)</sup> 다시 말하자면,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언어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될 것이요, 곧 그 언어의 문법을 안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즉 언어지식과 언어능력, 그리고 문법이라는 말은 표현만 달리한 것일 뿐, 결국 같은 말이다. 이 점은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상황에 따라 학생이라 부를 수 있는가 하면, 동생, 형님, 오빠, 친구, 회사원, 친척, 내 이웃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 것과 같다.

결국 언어 학습자가 그 언어를 안다고 한다면, 그는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곧 그 언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만약 그 언어를 안다고 할 때 말할 줄은 알면서도 읽고 쓸 줄은 모른다거나, 반대로 읽고 쓸 줄은 알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나타낼 수 없다면 그의 언어능력은 절반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언어 교육은 바로 절름발이 교육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어 교육은 말 한 마디도 못한다는 진단하에 회화 중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곧 상대적으로 읽기와 쓰기를 경시하고 있다는 말이다. 듣기와 말하기를 잘 한다고 해서 저절로 글을 잘 읽고 잘 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음성과 음성 조직에 대한 지식, 형태소와 단어의 뜻, 그리고 문장 구조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익혀 정상적인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가지 언어 기술을 훈련하여야 한다.

## 4. 문법 학습의 대상

### 4.1. 음성과 음성 조직

듣기와 말하기, 즉 회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그에 따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음성과 음성 조직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성 단위들, 즉 어떤 음소들이 있으며, 그런 개별적인 음소들이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갖는지를 안다는 말이 된다. 예컨대 한국어에는 없지만, 영어에 있는 자음과 모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이들 각 음소들이 결합해서 단어를 이루는 음성배합 규칙(phonotactics)을 아는 것도 음성에 관한 지식의 일부가 된다. 예컨대 영어의 경우에 [j-]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파찰음 [tʃ]와 [ʃ] 다음에는 유음 [i]나 [r]과 같은 음이 따라 오지 않는다는 것 등이 음성과 관련된 언어 지식의 일부이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특정한 음소들이 결합해서 단어를 이룰 때 나타나는 음 변화 현상이다. 예컨대 한국어의 경우에 ‘뱀’이라는 단어는 음성적 환경에 따라 ‘뱀’, ‘뱈’, 또는 ‘뱍’이라고 소리난다. 즉, 헌뱀의 경우는 ‘헌뱍’이라고 소리나지만, ‘뱀틀’은 대충 ‘뱀울’과 같은 음성표시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굳이’와 ‘굳은’의 경우에 ‘굳’의 ‘ㄷ’은 상이한 음성적 환경 때문에 다르게 소리난다.

영어에는 이처럼 음소들이 결합해서 단어, 어구, 그리고 문장을 이룰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음 변화 규칙의 적용을 받아 일정하게 언어음이 변하게 된다. 예컨대 in은 [in]으로 발음되지만, incomplete와 같은 단어의 경우에 연구개음 /k, g, ŋ/ 앞에 있는 /n/은 이 음들의 영향을 받아 /ŋ/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음 변화는 단어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어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예컨대 listen for it.이나 Listen for them.에서처럼 /r/은 어말에서, 그리고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서는 대개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그 다음에 오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되면 /r/음이 들리게 된다. 특히 미국영어에서 water와 go to school에서도 강세 있는 모음과 강세 없는 모음 사이에 있는 -r-는 한 단어 내에서나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r/음에 비슷하게 탄음(flap)화되어, go to school은 대충 [gʊʊ ru sku:l]처럼 들리게 된다.

또 다른 예로서 Americans send and get Christmas cards at Christmas.에서 and의 발음이 /ænd → ənd → nd → n/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send and get은 /send n get/이 되고, 더 나아가 /sen n get/으로 변한다. 바로 이와 같이 문장에서 음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음 변화 현상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은 음 변화에 대한 지식이 곧 음성 조직과 관련된 문법의 일부

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또한 문법의 일부로서 학습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발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길이가 문장속에 내포된 내용어(content words), 즉 명사, 형용사, 부사, 일반동사의 수와 이 이외의 단어들을 가리키는 기능어(function words)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다음 문장 중 (b)가 (a)보다 더 잘 들리고, 말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게 되는데, 그 까닭은 (b)에는 내용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book, very, interesting인 반면, (a)에는 room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a) He is in the room.

(b) The book is very interesting.

우리말은 키가 똑같은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은 것 같이 말에 있어서 높낮이가 없고, 말하는 속도가 거의 일정하지만, 영어는 키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놓은 것처럼 말하는 속도가 다른 리듬이 있는 언어이다. 두 언어 사이에 있는 이러한 음량의 차이가 곧 우리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화 습관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문법의 일부로서 분절음소와 억양, 강세, 소리의 세기, 연접(juncture) 등 초분절음소, 그리고 갖가지 음변화 현상과 관련된 훈련을 충분히 하여야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점은 바로 우리가 어떤 언어든간에 언어를 배우는 최초의 단계이다. 바로 이런 단계를 떠나서는 결코 상대방의 말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없으며, 따라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우선시하는 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런 음성적 요소들을 소홀히 하고 우리말을 하듯이 발음을 하는 습관에 젖어 있고, 모국어 화자들이 그렇게 발음하리라고 기대하게 되면 결국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상대방의 발화(utterance)가 한낱 의미없는 잡음에 불과하다고 여겨지게 될 것이다.

## 4.2. 형태

하기에 적절한 형태를 지녀야 한다. 예컨대 우리말에서 동사 '가다'라는 기본 형이 언어적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뀐다.

나는 어제 서울에 갔다/가려고 했(었)다.  
 한달 전에 서울에 갔었다.  
 아버지께서 내일 서울에 가신다/간다/갈 것이다.  
 나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고 있다.

또한 영어에서도 \_\_\_\_\_ is but skin deep.이라는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가 놓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beautify, beautiful, beauty 중에서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형 beauty를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다음 각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도 ( ) 안에 왼쪽에 있는 단어에 대한 화살표 오른 쪽의 형태가 문맥에 알맞은 형태가 된다.

She \_\_\_\_\_ in the garden now. (work → is working)  
 He \_\_\_\_\_ in the garden at that time yesterday.  
 (work → was working)  
 He \_\_\_\_\_ comes to see me these days. (rare → rarely)  
 My \_\_\_\_\_ get up late on Sunday. (child → children)

문장 구조에 대한 지식의 일부로서 단어들이 문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곧 형태에 대한 지식이다. 즉, 그 단어의 문법적 형태를 비롯하여 굴절 및 파생 형태를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

### 4.3. 의미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행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곧 화자/필자의 뇌리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이나 사상을 청자/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상황에 따라서는 한 개의 단어로 된 문장(예: Fire!)에서부터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에 이르기까지 하나 하나의 개별적인 문장을 단위로 전달하게 된다. 이 문장은 곧 어구들의 선적·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진 유의미적인 결합체이며, 그 어구들이 갖는 개별적인 뜻들이

I went to Seoul yesterday to see my old friends.

이처럼 한 문장에 내포되는 뜻이 개별적인 단어들이 갖는 뜻이 결합해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어떤 어구들은 개별적인 단어들이 갖는 뜻의 결합체가 아니라 한 어구가 ‘관용적인’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I often sleep like a log.

(= ‘to sleep deeply, esp. without moving’)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문맥 속에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맥을 잘 파악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결합체가 phrasal verb인지, 아니면 단순히 개별적인 단어들의 결합체인지 잘 분간하여야 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예에서 동사와 불변화사의 결합의 경우, 이것이 개별적인 뜻의 결합체인지, phrasal verb인지 파악하여야 한다.

He has **lived with** her.

We **decided on** the boat.

#### 4.4. 문장 구조

음성 (조직), 형태, 의미와 관련된 내용들이 곧 특정 언어의 학습과 관련해서 학습해야 할 대상인 문법의 일부에 해당된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문장 구조와 관련해서 문법 영역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우리는 의사소통 행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단어들의 유의미적인 연결체인 문장 구조를 활용하게 되는데,<sup>6)</sup> 이러한 문장 구조와 관련하여 학습해야 할 대상은 곧 단어문법(word grammar)·문장문법(sentence grammar)·담화문법(discourse grammar)이다.

##### 4.4.1. 단어문법<sup>7)</sup>

우리가 단어를 안다고 할 때 그것은 고작해야 그 단어의 철자와 발음, 그리

6) 물론 완전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는 자동차 여행자가 휘발유가 떨어진 것을 알고 휘발유를 보충하기 위하여 길가는 사람에게 ‘gas, where?’라고 말하더라도 상대방은 ‘Where is the nearest gas station?’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 그 뜻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단어를 안다고 할 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점이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로서는 어떤 단어의 용법에 대한 직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 즉 단어들의 연어 관계(collocation)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을 통해 얻게 된다.<sup>8)</sup> 만약 우리가 문장 속에서의 단어의 용법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많은 단어의 철자와 발음, 그리고 그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오래동안 기억할 수 없게 된다. 말하자면, 생물학에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언어 학습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하겠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단어의 뜻을 알고 그 단어의 용법을 알게 될 때 그 단어는 생명력을 지니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lack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 나타난다. 즉, 명사로 쓰이게 되면 가산명사나 불가산명사로서 전치사 of를 수반하고, 형용사로 쓰일 경우에는 서술적으로만 쓰이며 전달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 전치사 in을 포함하는 전치사구를 수반할 수 있다. 그리고 동사로 쓰일 때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명사구 목적어를 수반한다.

Despite <b>his lack of</b> experience, he got the job.	[명사적 용법]
The charges were dropped for <b>lack of</b> evidence.	[ " ]
There is a <b>lack of</b> people wanting to start up new businesses.	[ " ]
It <b>lacked</b> the power of the Italian cars.	[타동사적 용법]
Certain vital information is <b>lacking</b> in the report.	[형용사적 용법]
Information about the cause of the crash <b>was lacking</b> .	[ " ]

이 예에서처럼 lack라는 단어가 쓰이는 용법을 알 때 비로소 이 단어를 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이처럼 어떤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아는 것이 곧 단어문법이라 하겠다.

동사와 관련해서 보면, A. S. Hornby는 전통적인 기본 5형식 문장 분류 방식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OALD)*의 초판(1948)에서 동사를 25개의 문형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53개의 문형으로 나누어 어떤 동사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

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만,<sup>9)</sup> 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숫자와 알파벳을 이용하여 예컨대 find라는 단어는 VP6A, 12B, 13B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동사의 용법을 아는데 거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를 보다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에 개정된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사들이 요구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품사의 약자로 표시하고 있다.

find: Look what I've found. <VN> (동사 + 명사)

I found him a good job. <VNN> (동사 + 명사 + 명사)

The child was eventually found safe and well. <VN-ADJ> (동사 + 명사 + 형용사)

이렇게 표기함으로써 이러한 표기에 사용된 몇 개의 단어에 대한 약자만 알고 있으면 동사가 특정한 뜻을 가질 때 필요로 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

1978년에 나온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에서도 동사의 용법을 아무런 뜻도 없는 단순한 기호에 불과한 D, I, L, T, Wv1, Wv2, Wv3, ... V 등 36개의 기호와 10개의 숫자, 그리고 3개의 소문자를 사용하여 동사의 용법을 나타내고 있어서, 예컨대 find라는 동사는 'to discover, esp. by searching'이라는 뜻을 가지고 Wv6, T1, D1, 6a, V4라는 용법을 갖는다고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OALD* 초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사의 용법을 아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1987년에 나온 개정판이나 1992년에 나온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에서는 그 용법을 이해하는데 훨씬 편리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들 사전에서는 예컨대 deny와 find와 같은 동사들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어서 그 용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deny: T, <+ V-ing; that>, <+ obj + to-V>; <+ obj(i) + obj(d)>

find: T, <+obj(i) + obj(d)>, <+ obj + V-ing>, <+ obj + adj>

예컨대 deny는 다음에 동명사(V-ing), that-절, 목적어와 to부정사(obj + to-V), 또는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obj(i) + obj(d))가 오는 구조에 쓰인다는 점을 말해 준다. 즉, 이처럼 이들 사전에서는 동사형을 줄여 동사마다 이 동사의 구조를 약자로 표기했다.

Jill's behavior annoyed me. (VN: 동사 + 명사)

Elena became a doctor. (V-N): 동사 + 명사)

She considered herself lucky. (VN-ADJ: 동사 + 명사 + 형용사)

I gave Sue a book for Christmas. (VNN: 동사 + 두 개의 명사)

He kicked the ball into the net. (VN + adv/prep: 동사 + 명사 + 부사/전치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문장에는 동사가 있게 마련이고, 이 동사가 갖는 뜻에 따라 필요한 문장 요소가 첨가된다. 위의 마지막 예에서 kick은 목적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보충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사적 요소로서 부사나 전치사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동사에 의해서는 문장 구조가 결정되지만, 이밖에 명사의 경우에는 나타내 고자 하는 뜻에 따라 관사의 선택(정관사, 부정관사, 영관사)이 달라지며,

**Language** is a means of communication.

He is learning **a foreign language**.

**The language** is quite difficult to learn.

또한 명사와 관련해서 사전에는 가산명사로 쓰이는가, 불가산명사로 쓰이는가, 주로 복수로 사용되는 단어의 표시, 특정한 명사의 경우에 그 명사가 주어일 때 취하는 동사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등 명사의 가산성(countability)과 관련된 통사적 특징들이 표시되어 있어서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문법을 충분히 익혀야 한다.

#### 4.4.2. 문장문법

상황에 따라서는 한 개의 단어나 어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대개 문장 단위로 전달된다. 이러한 문장은 단어들의 연결체이기는 하지만, 아무렇게나 선적(linear)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장 구성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문장 구성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서술문의 경우에 문장은 주어 + 술어동사를 필수 요소로 해서 술어동사가 갖는 뜻에 따라 목적어와 보어를 갖춘 기본 구조를 가진 문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각종 문장 구조를 사용하여 필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즉, 긍정 서술문을 기저구조로 하여 여러 가지 변형 과정을 거쳐 능동태

같은 구조를 문장문법에서 취급된다.

#### 4.4.3 담화문법

언어는 항상 특정한 어떤 상황하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어떤 상황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어떠한 언어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 특정한 상황에 어울리는 특정한 언어 표현이 사용된다. 문장문법의 규칙에 따라 만들어지는 문장들이 전달하는 기본적인 명제 내용이 동일하다고 해서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속격 형태 '-s와 전치사 of가 유도하는 구, 즉 of-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다음 문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the country's output 대신에 the output of the country라고 하더라도 전달하려는 효과가 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

In 1870 America was still rural. More than half of all working Americans toiled on family farms and produced 35 % of *the country's output*.

즉,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이라야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컨대 만원 버스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려고 서있는 사람들을 밀치면서 앞으로 나오다가 키가 작아 보이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 것을 모르고 무심코 발을 밟았을 때 그 어린이가 '그 샌드위치 맛 참 좋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상황에 어울리는 반응이 아니다. 몸집이 큰 사람이 어린 아이의 발을 밟았으니 그 어린이는 아파서 '아야, 아파!'하고 큰소리로 외치는 것이 상황에 어울리는 반응이 될 것이다.

대화나 글을 쓰는 과정에서도 전후 상황에 맞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대응하는 두 개의 문장, 예컨대 My father made this chair.와 이에 대응하는 수동태 문장 This chair was made by my father.가 있는데, 언어 학습자들 중에는 이 두 개의 문장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서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어떤 문장이라도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상황이 다르면 분명히 표현도 달라야 한다. 올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음과 같은 예들도 각 쌍의 문장이 상황에 따라 달리 선택될 수 있는 것들이다.

To be with her is a pleasure

He gave his girlfriend a nice gift.

He gave a nice gift to his girlfriend.

또한 어순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담화에서도 두 번째 문장을 능동태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어색하게 된다.

Later, many temples were built in Koguryo to propagate the teaching of the Buddha. Gradually, *Buddhism was accepted by the common people* in the course of its syncretism with the native religion of shamanism.

As a first step we have made two assumptions: that the Theme of a clause consists of just one structural element, and that *that element is represented by just one unit* — one nominal group, adverbial group or prepositional group.

즉, 두 번째 문장을 능동태 형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바로 영어의 일반적인 원칙의 하나인 문미 초점의 원칙(principle of end-focus)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결코 올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문장문법의 측면에서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담화문법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바람직스러운 표현이 될 수 없다.

## 5. 결 론

과거에 우리는 중·고등학교에서 6년동안 영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문법-번역식” 교육 방식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 하여 문법이 영어 교육을 망치게 만든 주범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지금은 각급 학교에서 문법-번역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회화 중심으로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읽기와 쓰기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문법-번역식 교육 방식 때문이 아니라, 문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다. 문법이란 한 언어에 대한 지식이고, 그 지식은 곧 음성과 음성 조직, 형태와 의미, 그리고 어구들이 규칙에 따라 선적, 계층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문장

들을 학습하게 되면 언어의 네 가지 기술, 즉 듣기, 말하기, 읽기, 그리고 쓰기  
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근우. (1991). 영어담화문법. 서울: 한신문화사.  
하광호. (1995). 영어의 바다에 뺨뜨려라. 서울: 에디터.  
\_\_\_\_\_. (1996). 영어의 바다에 해엄쳐라. 서울: 에디터.  
Berk, Lynn M. (1999). *English Syntax: From Word to Discour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romkin, V., R. Rodman and N. Hyams. (2003). *An Introduction to Language*. Singapore: Thomson Heinle.  
Gleason, H. A., Jr. (1965). *Linguistics and English Gramma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Hornby, A. S. (1954). *Guide to Patterns and Usage in Englis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rocter, P. (ed.). (1978).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Summers, D. (ed.). (1992).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London: Longman.  
Wehmeier, S. (ed.).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고경환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66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자우편: [kosgroen@cheju.ac.kr](mailto:kosgroen@cheju.ac.kr)

접수일자: 2004년 8월 31일

게재결정: 2004년 9월 17일